

# ‘부전승 행운’ 광주FC, 亞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직행

플레이오프 상대 센트럴코스트 호주 A리그 2위로 출전권 확보 하위 대회 출전 확률 자동 삭제 “창단 첫 국제 대회 축제장으로”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도전하는 이정효호가 부전승 행운으로 AFC(아시아축구연맹) 최상위 대회에 직행했다. 8월 중 예정됐던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으면서 K리그1과 코리아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얻었다.

광주FC는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는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호주)와 ACLE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는데 경우의 수가 모두 삭제됐다.

센트럴코스트는 현재 진행 중인 2023-2024 A리그 멘에서 최소 2위를 확보했다. 남은 두 경기에서 웰링턴 피닉스 FC(뉴질랜드)와 우승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뉴질랜드 팀은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에 소속돼 AFC 산하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센트럴코스트가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A리그 멘 최상위 호주 팀에 주어지는 ACLE 티켓을 확보했고, 플레이오프 상대가 사라진 광주는 부전승으로



광주FC가 부전승으로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확정 지었다. 사진은 광주FC 선수단이 지난해 12월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뒤 3위를 확정짓고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ACLE 진출이 확정됐다.

광주는 8월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센트럴코스트와 단판 승부를 치를 예정이었다.

센트럴코스트가 2023-2024 AFC컵에서 준우승에 그치거나 2023-2024 A리그 멘에서 호주 클럽 최상위에 오를 경우 부전승이었다.

당초 ACLE 플레이오프는 광주와 산둥 타이산(중국 슈퍼리그 2위), 태국 FA컵 우승 팀이 중립 지역에서 한 차례씩 맞붙어 상위 2개 팀이 진출하고 하위 1개 팀이 ACL2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었다.

하지만 방식에 변경이 있었고 광주는 2023-2024 AFC컵 우승 팀, 산둥 타이산은 태국 FA컵 우승 팀과 단판 승부로 ACLE 진출을 가리는 형태가 되면서 부전승 여지가 생겼다.

광주로서는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 다시 한번 행운이 따른 셈이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정규 라운드에서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을 달성하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15승 9무 9패(승점 54)로 3위에 오르며 파이널A에 진출했고, 1부리그 최다 승

리(종전 12승)와 최다 승점(종전 47점) 기록을 모두 정규 라운드에서 경신하는 괴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파이널 라운드 들어 인천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에 달미를 잡히는 등 1승 2무 2패(승점 5)에 그치며 추격을 허용했고, 최종 라운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0-0으로 비겼음에도 경쟁 팀들이 모두 패하며 3위를 확정 지었다.

광주는 아시아 무대가 ACLE와 ACL 2, AFC 챌린지 리그(ACGL) 등으로 새로 개편된 가운데 최상위 대회에 나서게 된 만큼 국제적 명성을 얻을 기회를 놓치

지 않겠다는 각오다.

ACLE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그룹에 편성된 12개 팀은 리그 스테이지에서 무작위로 같은 국가를 제외한 8개 구단과 홈 4경기, 원정 4경기씩 총 8경기를 치른 뒤 상위 8개 팀씩 16강에 진출한다.

이어 16강을 같은 그룹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른 뒤 파이널 스테이지인 8강부터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통합해 중립 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우승 팀을 가린다.

광주는 오는 8월 대전 추첨을 마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 첫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사상 첫 ACL 진출에 다양한 기념상품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는 월드컵 경기장 시설 리모델링과 보강 공사 등을 통해 2004년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제 경기를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구단 역사상 첫 국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광주시민과 팬들이 어우러지는 축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효 광주FC 감독 역시 “광주에 축구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고의 경기력으로 시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28일 울산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3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광주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전남 1498명 생활체육 동호인 기량 뽐낸다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오늘부터 나흘간 울산 일원

광주·전남 1498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울산 일원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전국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울산 일원에서 열린다.

‘꿈의도시 울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에는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6만여명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축전에 149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는 570명(선수 472명·임원 및 지도자 98명)이 검도와 게이트볼 등 29개 종목에 참가한다.

광주 대표 선수 중 최고령은 게이트볼 종목 김승중(85)씨다. 김승중씨는 평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출전해 노력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번 대축전에서도 기량을 뽐내겠다는

각오다.

합기도 종목의 이우빈(9)군은 최연소 참가자로, 막내다운 패기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계획이다.

전남은 국학기공, 궁도 등 33개 종목에 928명(선수 835명·임원 및 지도자 93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게이트볼 종목의 고재호(90)씨는 전남 선수 중 최고령 선수로, 롤러 종목의 이재운(9)군은 최연소 선수로 각각 출전한다. 육상 포환던지기 김성봉(76)씨는 대회 3연패 도전에 나선다. 육상 멀리뛰기 김형찬(62)씨와 로드레이스 5km의 최광임(71)씨, 로드레이스 10km의 김동욱(58)씨는 지난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 ‘나의 일이 빛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내·국제행사와 관련된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지역홍보대사 역할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최동한 기자

## 전남장애인체육회,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2차 대표자 회의

17개 시·도 관계자 150명 참여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5~26일 신안 비치호텔에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제2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남도, 중앙종목단체,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150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주요 사항 공지 및 추진 상황 보고 △등급 통합조정(안) 및 경기 일정 안내 △종목별 대진 추첨 △경기장 및 인근 숙박시설 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5월 14~17일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울산 대회보다 349명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8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7개 종목(육상 5·보급 11·전시 1개)에서 기량을 펼친다.

전남도도와 전남장애인체육회는 17개 시·도의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여러 문화행사도 체전 기간 중 열기로 했다.

제3회 전남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고 목포 평화광장과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시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도 체전 기간 전후로 집중 개최된다.

또 전국 최초로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17개 경기장에 레이저 사격, 별문아트, 마카롱 디자인, 거울 만들기 등 대회 기간 학생 선수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200만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감동·희망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한 기자

## ‘준프로 계약’ 손건호, 代 이어 전남드래곤즈 입단



아버지 손백기 광양중앙초 감독  
1996년 드래프트로 전남 유니폼

전남드래곤즈가 18세 이하(U-18) 팀 소속인 손건호(17·광양제철고 3)와 구단 역사상 2호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손건호는 전남에 몸담았던 아버지 손백기 광양중앙초 여자 축구부 감독의 대를 이어 입단하며 부자가 같은 구단에서 활약하게 됐다.

전남드래곤즈는 손건호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손건호는 173cm, 65kg의 체격으로 활발한 활동량

전남드래곤즈가 18세 이하 팀 소속인 손건호(오른쪽)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과 빠른 스피드를 장착한 유망주로 현장 평가를 받는다.

손건호는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전남에서 22세 이하 자원으로 쓸쓸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격에서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손건호는 손백기 광양중앙초 여자 축구부 감독의 아들로 부자가 모두 전남에 몸담게 됐다. 손 감독은 지난 1996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2순위로 지명돼 전남에 입단한 바 있다.

손건호는 구단을 통해 “기회를 주신 전남드래곤즈와 이재형 감독을 비롯한 광양제철고 코칭스태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프로 데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모님께 꼭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규빈 기자